

## &lt; 붙임 &gt;

**1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**

## □ 연도별 현황

- 최근 4년여간(2018.1.~2021.10.)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상품\*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으로, 이는 아파트 품목 전체 피해구제 신청 445건 중 11.7%에 해당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함.

\*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)

**[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]**

(단위: 건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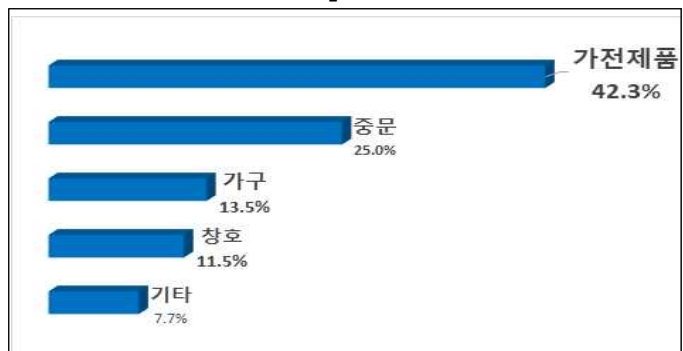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1~10월	합계
아파트	142	120	108	92	445
옵션 상품	10	9	13	13	52
(비율)	(7.0)	(7.5)	(12.0)	(14.1)	(11.7)

## □ 품목별 현황

- 시스템에어컨, 냉장고와 같은 ‘가전제품’이 42.3%(22건)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‘중문’ 25.0%(13건), 붙박이장, 식탁세트 등 ‘가구’ 13.5%(7건), 유리, 방충망, 단열필름 등 ‘창호 관련’ 11.5%(6건) 등의 순이었음.

**[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]**

품목	건수(건)	비율(%)
가전제품	22	42.3
중문	13	25.0
가구	7	13.5
창호	6	11.5
기타*	4	7.7
합계	52	100.0



\* 아트월, 세대창고, 인테리어, 주방옵션

## □ 피해유형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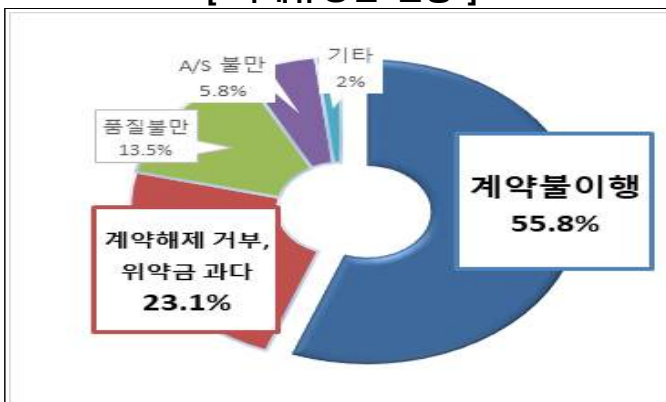
- 옵션의 종류나 시공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의 ‘계약불이행’ 관련 피해가 55.8%(29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계약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’ 23.1%(12건), ‘품질 불만’ 13.5%(7건), ‘A/S 불만’ 5.8%(3건) 순이었음.

- ‘계약불이행’, ‘계약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’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78.9%(41건)로 나타남.
- 특히,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은 계약 시와 설치 시 모델(스펙)이나 시공 형태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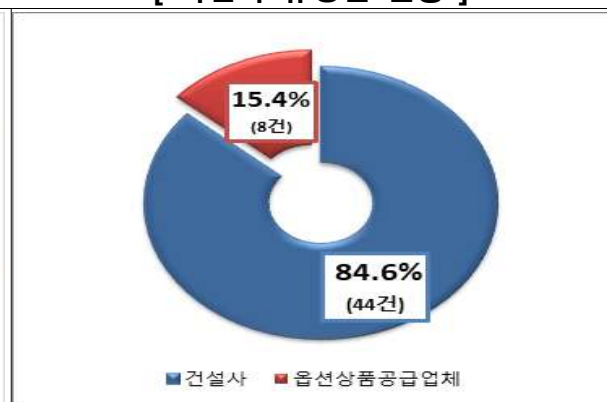
## □ 사업자 유형별 현황

-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84.6%(44건)이었고, 개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 15.4%(8건)였음.
- 방충망, 단열필름, 창호 등과 같이 아파트 구조물의 변경과 무관한 옵션 상품은 개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음.
- 소비자가 건설사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개별 품목에 대한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됨.

[ 피해유형별 현황 ]



[ 사업자 유형별 현황 ]



## □ 계약금액별 현황

- 아파트 옵션상품 금액이 확인되는 38건을 분석한 결과, 100만원 이상 ~ 400만원 미만이 50%를 차지하며, 평균 금액은 2,692,000원이었음.
- 특히,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평균 4,964,000원으로 가장 많았음.

금액	건수(건)	비율(%)
1,000만원 이상	1	2.6
700만원 ~ 1,000만원 미만	2	5.3
400만원 ~ 700만원 미만	7	18.4
100만원 ~ 400만원 미만	19	50.0
100만원 미만	9	23.7
합계	38	100.0